**트롤리 문제**

한편에서는 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윤리 문제가 핵심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둘 중 하나만 살려야 하는 선택지가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 명을 살릴지, 한 명만 살릴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결코 낮다고 볼 수는 없죠. 이처럼 자율주행차는 도로에 서 있는 서로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미칠 위험을 계산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에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책 입안자 모두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율주행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21세기 현대판 ‘트롤리 문제(The Trolley Problem)’라고 칭하는 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21세기 현대판 트롤리 문제를 어떻게 풀길 원할까요?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종합한 총 13가지 시나리오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응답자의 성별, 나이, 소득 구간, 교육 수준, 그리고 종교관과 정치관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도 추가로 활용했습니다. 연구진은 설문조사를 열람한 위치 정보도 분석에 활용했죠.

1. 핸들을 꺾을 것인가요, 핸들을 유지할 것인가요?

   2. 탑승자를 살릴 것인가요, 보행자를 살릴 것인가요?

   3. 남자를 살릴 건가요, 여자를 살릴 건가요?

   4. 뚱뚱한 사람을 살릴 건가요, 날씬한 사람을 살릴 건가요?

   5. 사회적인 명망이 두텁지 않은 사람을 살릴 건가요,

사회적인 명망이 높은 사람을 살릴 건가요?

   6.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살릴 건가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살릴 건가요?

   7. 노인을 살릴 건가요, 아이를 살릴 건가요?

   8. 소수의 사람을 살릴 건가요, 다수의 사람을 살릴 건가요?

   9. 동물을 살릴 건가요, 인간을 살릴 건가요?

연구진이 온라인으로 대규모 설문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다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형적인 방법론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만 알아보면 됐습니다. 하지만 위처럼 9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수백만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지죠. 두 번째는 윤리적 선호에 대한 집단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모럴 머신은 233개국에 거주하며 10개 언어를 구사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3,961만건의 의사결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성공합니다. 연구진은 “이 방법이 각국의 사회-인구통계학적 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관찰 결과가 기존에 확립된 문화권별 윤리적 선호도와 일치하고 있으며 거시경제변수로 모럴 머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데이터는 상당히 신뢰해봄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출처 : 카카오브레인(<https://www.kakaobrain.com/blog/59>)